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

권 순 희*

〈차 례〉

1. 서론
2. 호주의 다문화주의
3. 호주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정책
4. 호주의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 정책
5. 다문화 가정¹⁾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제안
6. 결론

1. 서론

한국의 경제 개발과 도시화의 변화로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도시

* 전주교대 교수, shkwon@jnue.ac.kr

1)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출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 동안 ‘코시안(Kosian)’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기 때문에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2006학년도 국제결혼 가정 도움 계획(Kosian Edu Plan)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국제결혼 가정을 통칭하는 명칭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온누리안(Onnurian)’이 선정되었다. 온누리안(Onnurian)은 온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누리’와 ‘-ian’(사람을 뜻하는 어미)이 합쳐진 합성어이다(2006년 03월 21일자 전북교육뉴스 참고).

반면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에서 연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로 이동하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었다. 국정브리핑2)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결혼의 13.5%, 그 가운데 농어촌 남성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3). 국제결혼 문제가 대두되고 보편화되면서 2세 교육의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이민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정책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과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언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호주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적인 다양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만을 한 연구가 아님을 밝힌다.

2장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학적·교육적 이론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호주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소수 민족 보호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호주의 언어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 방향을 5

2)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2006년 5월 26일자 참고.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view?r=§ion_id=mi_sec_1&id=18ccfec7dd049b238a5f4db7

3) 통계청(2006)에서 발표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에 따르면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43,121건으로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 316,375건의 13.6%에 달한다. 또 2005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남자) 중 외국 여자와 혼인한 비율은 35.9%로 2004년 27.4%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치러지는 결혼의 1/3이상이 외국 여자와의 결혼인 셈이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주의 다문화주의

호주는 백호주의를 표방한 적이 있었으나 1970년대 초반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다문화적 현실에 조용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용승(2004: 181)에서는 다문화주의의 등장 배경을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복수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에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에서 다문화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학문적, 정책적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개념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 계층이나 소수 계층, 혹은 세대간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이용승 2004). 따라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다문화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이를 대체할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다(김미윤, 2004).

동질적이고 균질적인 정체성을 필요로 했던 근대 국가 정책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 다문화주의이다. 자문화 우월의식에 기반한 주류 문화에 대한 적대적, 시혜적 동화정책은 점점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문화주의인 것이다. 공식적 언어와 문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근대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이 다문화 교육 정책이다.

다문화 사회는 버토벡(Steven Vertovec, 199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인접한 동질적인 소수의 단위 문화가 다수의 단위문화를 배경으

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샐러드 볼(salad bowl)같은 유익한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상정한다. 캐슬(Stephen Castles 2000: 5)은 다문화주의가 영토라는 지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국가적 소속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논의한다. 최근의 신다문화주의 이론에서는 영토라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하다(Steven Vertovec, 2001).

이경호(2002)는 슈와츠(Shwartz, 1995)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문화교육의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입장에 따라 주류 다문화주의(mainstream multiculturalism) 교육과 급진적 다문화주의(radical multiculturalism⁴⁾) 교육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주류 다문화주의 교육은 타자를 자문화로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적 상황 파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 다문화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타문화를 자문화, 즉 지배 문화에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정책이 주류 다문화교육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토착민(인디언)들에 대한 시각, 황인종, 흑인종 등 다양한 인종을 파악하는 시각도 백인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관점에 머무른다. 백인이라는 주류에 대한 비주류라는 차원에서만 각 인종들의 다양함을 인정한다. 결국 주류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문화들의 다양성은 주류에 포섭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인정되며 영원히 소수에 머무르는 문화일 뿐이다(김미윤, 2004: 133). 주류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들은 포섭과 동화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며, 사회의 영원한 타자로서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질서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지 않으며, 최선의 경우 타협만이 존재한다.

4) 김미윤(2004)에서는 같은 용어를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승(2004)에서는 급진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맥상 급진적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둘째, 급진적 다문화주의 교육은 사회적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 다양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자체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급진적 다문화교육은 지배 문화 중심의 포섭적 다문화주의를 배격한다(이경호, 2002:297). 이 관점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 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관점 외에도 조합적 다문화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조합적 다문화주의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문화가 처할 수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도 다문화 방송, 다문화 문서, 다언어, 다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소수민족 학교나 공동체에 대한 원조 또한 사회 참가의 수단적 의미라기보다는 소수문화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유형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주는 1970년대 이전에는 주류적 다문화주의 교육을, 1973년대 이후에는 조합적 다문화주의 교육을 채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호주 역시도 백호주의를 표방하던 당시에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주류 문화에 동일한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계층의 정체성은 동화정책에 의해, 혹은 지역적 고립에 의해, 때때로 제도적, 법적 제재와 소외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단지 생래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가 주조하고자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시민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변종'이나 '이탈'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인정,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의 분출⁵⁾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민족적 소수 그룹에 대한 배제와 탄압,

5)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소수 민족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세

차별과 동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이용승, 2004: 184-185). 이러한 요구는 온건한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이나 유고연방 등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될 때와 같이 간혹 폭력적인 양태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실패와 자유 민주주의와의 규범적 병립 실패라는 이중의 실패에 직면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다민족 국가는 국민형성 혹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기존의 기초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청받기에 이른다.

한국은 아직 호주와 같이 다민족 국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초창기 정책을 세우는 단계에 있다. 외국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막기 위함이다. 초창기 호주에서 범하게 되었던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20~30년 후의 우리나라 사회상을 예측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자도 이 시점에서 정확한 정책 진단을 내리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언어 교육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시발점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정책의 변화는 언어정책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3. 호주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정책

호주인은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이민자와 1970년대 이후에 유입된 베트남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민족의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 구성원의 특성 때문에 영어 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에서는 1.5세대 이민자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호주에 적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영어 정책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와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학 연수하기에 좋은 국가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다는 것도 언어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장이나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기보다는 ‘어학 연수’와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언어 교육 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호주의 영어 교육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실시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이민을 온 사람의 경우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는 시드니 내에 각 지역별로 이민자 어학원이라는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의 경우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전에 ‘랭귀지 스쿨’이라는 어학원에서 일정기간 영어 교육을 받은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고 정규학교로 이관된다. 이민자가 아니면서 호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을 위해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인 카운슬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문제를 언어정책이라는 관문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사고의 통로이기 때문에 언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를 국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 교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강사들은 다양한 책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특히 카운슬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의 경우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영어 교육에서도 어린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결혼하고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이 영어교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랭귀지 스쿨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준

(레벨)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어교육에는 이민자나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과 영어에 능숙한 이민자나 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수준이 있다.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레벨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평가도 수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영어 도우미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 도우미 교사는 다른 과목의 과제수행에도 도움을 준다.

호주 NSW 주의 영어 교육은 6단계(stage)의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3단계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계발하는 단계로서 언어가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배운다. 또한 언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재미와 감동을 주며, 정보를 주는지 배우는 언어의 기초 단계이다.

4~5단계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영어 이수 과정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의 기능을 배운다. 이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문학과 작문을 배우면서 성숙한 언어를 경험하게 된다. 작문과 시각적 언어의 필요성을 배우고, 사회, 개인, 예술 그리고 방송 매체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11학년과 12학년의 영어 이수 과정이다. 가장 고급적인 단계라 할 수 있고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과정(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이 과정은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외국어 배경 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어려운 텍스트보다는 영어의 적절한 사용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다.
- 기본 과정(Fundamental course): 이 과정은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과정(ESL)과 표준 과정의 중간 과정이다.
- 표준 과정(Standard course): 이 과정에서는 영어의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상 생활의 지위를 높여준다. 많은 텍스트와 상황을 접해 보면서 작문력, 창의력, 자신감을 배운다.
- 고급 과정(Advanced course): 이 과정에서는 좀 더 고급 경험을 쌓으면서 어려운 텍스트의 기능과 배경을 배운다.

- **최고급 과정(Extension course)**: 고급 과정보다 더 심도 있는 것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어려운 텍스트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습 자료가 제공된다.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이민자나 외국인인 ESL, 기본 과정, 표준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에 능통한 이민자나 본국인은 표준 과정, 고급 과정, 최고급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이스쿨⁶⁾의 영어 교육 방식은 호주 특유의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습 차원의 교육이다.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각자의 요구와 자질,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 분야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독립심을 기르며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르친다. 각 학교마다 마련된 도서관 시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를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교 과제로는 리포트 형식의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영어과에서도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성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영어 교육 방침은 영어 교과서 선택 방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호주의 영어 수업에는 특별한 교과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호주 교육부에서 인정한 많은 교과서(textbook) 중에서 하나를 학교 차원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메인 텍스트북으로 정하고 나머지 영어 관련 자료들을 교사가 직접 찾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학생 스스로가 영어 학습 자료를 찾아 이를 이용한다. 또 양 많은 소설이 영어 시간에 사용된다. 이는 교과서에 적힌 뻔뻔한 지식보다는 각 개개인의 주제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

6) 호주의 하이스쿨은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7학년~10학년)에 해당하는 주니어 하이스쿨과 고등학교 2, 3학년(11학년, 12학년)에 해당하는 시니어 하이스쿨이 있다.

문에 생긴 제도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기본으로 하여 언어 실습실, 비디오 및 첨단 기기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청각 시설을 갖추어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지향하는 호주의 영어 교육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호주 하이스쿨의 말하기 교육은 대개 수업 중에 발표나 토론, 연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하나의 토론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조사를 해 와서 자신의 의견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학생들끼리 토론 그룹을 형성하여 토론회를 여는 형식으로 말하기 연습을 한다. 수업 중 학생의 참여도는 높다. 그 밖에도 신문, 라디오, 잡지, 텔레비전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자료들로부터 주제를 정하고 토론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며 자유롭게 진행되는 게 보통의 영어 수업이다. 말할 때에 손 놀림이나 몸 동작, 얼굴표정, 시선 처리 등 말할 때의 자세나 태도 또한 말하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다. 말하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마다 학교 대항 토론 대회도 있다.

듣기 교육은 시청각실에서 행해지는 듣기 연습이 주를 이룬다. 대체로 학생들은 오페라, 라디오 방송, 코메디 프로그램이나 가요를 들으면서 듣기 연습을 하는데 말투나 억양을 듣고 그 속에 감춰진 의미나 말하는 화자의 감정 상태, 대화의 핵심 등을 파악하는 연습을 주로 한다. 또 좌담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뉴스, 연설 등을 청취함으로써 적절한 응답을 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얼마나 잘 듣는지가 영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읽기 교육은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거나 셰익스피어, 조지 오웰과 같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나 유명한 소설을 읽고 감상하며 학습한다. 고전문학을 배울 때도 고전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에세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처럼 훈민정음이 몇 년도에 쓰여 졌으며, 용비어천가의 작가가 누구이고, 상춘곡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하며, 제망매가의 주제는 무엇인가 등

의 특정한 사실이나 지식 교육이 아니다. 고전문학의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연결 지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고전문학으로 에세이를 쓰는 것이다.

또 여러 종류의 글, 신문이나 광고 등을 보고 그 글의 진의를 파악해 내는 독해력 훈련 등도 한다. 학생 스스로 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해 낸다. 학생의 창의력과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읽기의 반복을 통해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며, 개인의 관점에 기초한 의견을 구사하도록 교육받는다. 암기 보다는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높이려 한다. 읽기 평가는 쓰기 평가를 포함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시사적인 글을 제시해 주고, 문제에서 원하는 장르에 맞추어 관련된 문체를 찾아 글을 쓰는 시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쓰기 교육에서는 교사가 특정한 주제를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시행하는 에세이 쓰기와 특정 주제 없이 학생이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게 하는 창작 글짓기가 주로 이루어진다. 또 편지나 경찰 조사서(police report), 신문사설, 기사 등 전문적인 글쓰기 지식을 배우기도 한다. 쓰기 평가도 읽기 평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주어진 책 2권 정도를 읽고 시험에서 주어진 문제에 관해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의 편집자가 되어 여러분이 읽은 그 책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경우 신문 편집자가 되어 책에 대한 논평을 하는 어조와 문체로 글을 쓰듯이 써야 하는 것이다.

4. 호주의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 정책

호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수 언어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영어교육 제도 못지않게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소수 언어인 한국어 교육에도 개방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 2외국어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 아래 소수 민족의 언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소수 언어 정책은 소수 민족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 국민이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진 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수 민족 차원에서 본다면, 이민자나 외국인 자녀에게 모국어를 알게 함으로써 부모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 정책, 경제 교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기회 비용으로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영어와 모국어(다국어)를 함께 함으로써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관과 국가 지원 기관인 학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기관에서 수행되는 한국어교육 제도로 한글학교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지원 기관인 하이스쿨 내의 한국어교육과 토요학교, 오픈 하이스쿨, 대학교 내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있다.

(1) 한글학교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시드니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토요일에 한글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에 한글학교 체제를 두어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NSW 주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NSW 주 교육청의 한국어과에 한국이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셈이다. 호주에서 가장 큰 한글학교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이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한글학교를 11개의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9개의 반과 하이스쿨 2개의 반이 있다. 한 반의 인원수는 20명 안팎이다.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가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진다.

한글학교의 교사는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이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실성과 열정만 있으면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주에 거주하기 전에 한국에서 교사 경력이라도 있으면 아주 좋은 교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글학교 교사는 교민 자녀를 위해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휴일인 토요일에 한글을 가르치러 한글학교에 나온다는 것은 헌신에 가까운 행위이다.

교재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쓰거나 한국의 저학년 ‘국어’교과서를 수입하여 사용한다. 물론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와 절충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국어’교과서는 한국 국내인을 위한 것이지 재외 동포를 위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주요 교재로 재외 동포용 한국어 교재⁷⁾를 사용하게 되어 다소 그 어려움이 감해지게 되었다. 중앙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의 학년별 교과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글학교 교재

학급	교재	부교재
초등 1	답입교사 준비물	
초등 2	재외 동포용 한국어 입문편	
초등 3	재외 동포용 한국어 초급Ⅰ(상)	(한국의) 국정 교과서 쓰기
초등 4	재외 동포용 한국어 초급Ⅰ(상),Ⅰ(하)	(한국의) 국정 교과서 쓰기
초등 5	재외 동포용 한국어 2	(한국의) 국정 교과서 쓰기
초등 6	재외 동포용 한국어 초급Ⅲ(상, 하)	(한국의) 국정 교과서 쓰기
초등 7	재외 동포용 한국어 초급Ⅳ(상,하)	한글 중급Ⅰ(박희서)
초등 8	재외 동포용 한국어Ⅴ,Ⅵ	국정교과서 읽기, 쓰기
초등 9	재외 동포용 한국어 중급Ⅰ(상,하)	국정교과서 읽기, 쓰기
고등 10	재외 동포용 한국어 고급Ⅰ(하)	한국어 회화 기초편
고등 12	국어 교과서 중1-1, 1-2	한국어 고급Ⅱ(상)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2001년 11월에 제작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 15분까지 보통 3교시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들이 학생들을 수업시작 전에 픽업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픽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처럼 셔틀을 운행하는 일은 어렵다.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한국의 아파트식 주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공립 초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교육과 토요일학교

이민 자녀⁸⁾들이나 유학생들의 모국어 교육을 유지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NSW 교육부는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에 두고 있다. NSW 교육부 교사 자격증과 동시에 모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초등학교와 하이스쿨에서 임용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모국어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하여 29개의 언어를 50,000여명⁹⁾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배울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근원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한 학생이 일주

- 8) 2002년 현재 NSW 교육부에서 밝힌 공립학교 학생 중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생 수	하이스쿨 학생 수	합계
1994년	1423	1573	2996
1995년	1530	1658	3188
1996년	1659	1724	3383
1998년	2174	2117	4291
1999년	2450	2193	4643
2000년	2663	2132	4795
2001년	2819	2184	5003

- 9) 한국어는 4개 초등학교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에 총 10시간 운영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어는 일주일에 총 303시간, 아랍어는 총 252시간, 베트남어는 총 174시간, 이태리어는 총 147시간, 그리스어는 총 102시간, 스페인어는 총 52시간, 마세도니아어는 총 37시간, 터키어는 총 31시간, 크메르어는 총 17시간 분량이 정규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일에 2시간 이상을 공부하게 되고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전교생에게 특정 언어를 소개할 수도 있다.

한국어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캄시 초등학교에서 주 2시간, 칼링포드 웨스트 초등학교에서 3시간, 채스우드 초등학교에서 2시간, 그리고 2001년에 하코트 초등학교에서 3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2003년 현재 총 24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요청하게 되면, 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후에 교육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허락이 나면, 한국 학생수가 40여명인 학교는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2일, 한국 학생수가 60여명인 학교는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3일 근무하면서 지도해 주기도 한다. 이 때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community language 교사¹⁰⁾)는 모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에 맞추어 모국어로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호주에서는 하이스쿨이라고 통칭한다. 하이스쿨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민 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과 호주 사람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와 한국에서 이민 온 이민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이 한국어를 선택하여 수강하였을 때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한국어의 단계가 다르고 대입 시험인 HSC에서도 단계별로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된다. 즉,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고 학생에게 학습을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이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덕분이다.

10) 호주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영주권이나 호주 시민권이 있어야 하고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교사 자격증을 NSW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으로 바꾸고 일정한 시험에 통과하고 호주 NSW 교사 자격증(아무 과목이나 상관없음)을 취득하여야 community language 교사가 될 수 있다. 허가증은 한국의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한국 교사 자격증, 자격 취득 경력 후의 경력 등을 검토한 후에 부여된다. NSW교사 자격증은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이나 시드니 대학에서 1-2년 정도 다닌 후 디플로마 과정이나 석사 과정 과정을 마쳐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과정 중에 NSW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PEAT(Professional English Assessment for Teachers)시험과 Personal suitable interview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은 1년에 4번 실시된다.

호주인이나 타민족 이민자가 한국어를 수강할 때보다 오히려 교민 자녀가 한국어를 선택했을 때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교민 자녀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과 한국어 시험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민 자녀가 한국어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교민 자녀들이 한국어 선택을 기피하기도 한다.

하이스쿨 내에 한국어 수업이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도 서너 개의 학교에서만 한국어 수업이 정식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의 경우는 여러 하이스쿨의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하는 형태인 토요 학교¹¹⁾를 운영하고 있다. 토요학교는 다문화 국가인 호주 정부의 언어 정책에 따라 모국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정규학습과정이다. 대부분의 소수 언어들은 이 토요학교 수업을 통해 가르쳐진다.

주 5일만 학교를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토요학교는 토요일에 일부 학교의 건물을 빌려서 여러 나라의 언어¹²⁾를 교육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제도이다.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호하지는 차원의 노력이 토요학교¹³⁾와 같은 제도를 낳은 것이다.

11) 토요학교는 1978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요학교는 하이스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수언어를 배경으로 성장한 학생들에게 배경 언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토요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는 현재 24개 언어이다. 24개 언어는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네덜란드어, 필리핀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라틴어, 리투아니아어(Lithuanian), 마케도니아어, 현대그리스어, 몰타어(Maltese),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슬로베니아어(Slovenian), 스페인어, 터키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등이다.

12) 호주는 다민족 국가이다.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다. 50여 민족이 모여서 호주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 정부는 다민족을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려는 노력보다는 다민족의 문화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는 국가 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언어 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소수민족의 언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부의 노력과 교육 제도의 운영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토요학교의 운영이나 오픈 하이스쿨의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정규수업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와 토요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규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독일어, 불어 등을 전공한 선생님¹⁴⁾이 한국어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한 사람이 3개 정도의 과목을 맡아 지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토요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도 2개 이상의 과목을 맡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평일에는 자신이 전공한 일반 과목을 맡아 가르치다가 토요일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 선발의 과정을 거쳐 일부 한국어 교사는 한국에 방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SW 주정부 교육부는 공립학교 재학생 중 한국어를 본학교나 주정부 토요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9-12학년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가서 정식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공부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3년간 시행한 바 있다. 한국 교민들은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고 주로 호주인이 선발되었다.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고 보조금은 일인당 1100불 정도이다. 최소한 10일 이상을 한국에서 학습하고 와야 하는 프로그램¹⁵⁾이다. 지금 현재는 재정상의 문제로 중단된 프로그램이다.

13) NSW 주정부 토요학교는 2003년 현재 5개 센터에 있다. Chatswood High School Centre: Centennial Ave, Chatswood 2067, Grantham High School Centre: Best Road, Seven Hills 2147, Dulwich High School Centre: Seaview Street, Dulwich Hill 2203, Randwick High School Centre: Open High School, Avoca & Cowper Streets, Randwick 2031, Strathfield Girls' High School Centre(2002년부터 토요학교 운영): Albert Rd, Strathfield 2134

14)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국어를 배경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교사가 대부분이다.

15) Student Language Study in Overseas Countries(SLSOC) Program

(3) 오픈 하이스쿨

시드니에 있는 오픈 하이스쿨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학생이 8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대부분의 학생은 시드니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 학교 학생이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각 국의 언어¹⁶⁾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린트된 자료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전화를 이용한 교육, 대면을 통한 개인 교육과 소집단 교육,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언어를 교육하고 있다.

주로 읽기, 쓰기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 교육은 우편물로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부여된 과제를 수행한 후 오픈 하이스쿨 사무실로 우편을 이용하여 부친다. 오픈 하이스쿨 사무실에서는 우편물을 분류하여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된다. 담당 선생님은 읽기 쓰기에 대한 과제물을 평가하고 지도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학습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말하기, 듣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에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화를 건다.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고 교사 역시 컴퓨터 앞에서 수업 할 준비를 한다. 교사가 매직 보드에 글씨를 쓰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컴퓨터로 선생님이 쓴 글씨를 볼 수 있다. 매직 보드와 컴퓨터가 칠판이 되고 전화기가 음성 전달 매체가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원거리 교육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동안에는 오픈 하이스쿨에 출석 수업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오픈 하이스쿨 학생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소수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해당 국가에 연수를 보내는 제도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서울로 2주간의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학원에 의뢰하거나 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오픈 하이스쿨 학

16) 오픈 하이스쿨에서 취급하고 있는 언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라틴어, 현대그리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다.

생들이 어학연수를 받기도 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문제와 지속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어 지금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4)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 한국어과의 위상은 현대 언어(modern language)라는 학부 안에 일본어 및 한국어 학과로 존재한다. 한국의 언어와 역사, 사상, 예술 등을 가르치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과목과 한국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6단계로 구성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 2, 3단계는 호주인,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초급 수준의 교민 자녀 등이 수강하게 된다. 4단계와 5단계에서부터는 문학을 다루려는 노력을 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6단계에서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교민 자녀와 한국인 호주 유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이 단계에서는 번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 번역을 위한 자료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을 번역하게 되면 대부분의 영문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이 쓴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문의 문장 수준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비해 떨어진다. 전문 번역가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도 이 과목을 듣고 있다.

한국어에 관련된 과목명은 1학기에 KORE1000, KORE2000, KORE3000, KORE3400, KORE3500, KORE3600과 같이 숫자로 표시된다. 2학기에는 KORE1001, KORE2001, KORE3001, KORE3401, KORE3501, KORE3601 등과 같다.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계만 드러나고 특성화된 과목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과목명이 초기단계의 한국어 교육 상황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평가와 에세이 과제와 주별 과제, 인터뷰 등의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고사는 15점 만점, 기말고

시는 15점 만점으로 지필 평가의 비중은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한다. 2차레의 에세이 과제로 쓰기 평가를 하는데 점수의 비중은 20점이다. 주별 과제로 학습지가 부여된다. 워크시트(worksheet)라는 학습지는 매주 과제로 나가고 10점을 배정한다. 말하기 듣기 평가로 회화 평가가 있다. 회화 평가는 회화 담당 교수와 한국어 관련 교수 1인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녹음을 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 회화 평가는 20점이다. 그밖에도 발표 10점과 출석10점 만점으로 평가가 시행된다. 지필평가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문법 1.5점, 영어로 번역 2.0점, 한국어로 번역 2.5점, 질문에 대한 답 3.5점, 작문 5.5점으로 구성된 평가지로 행해진다.

5.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제언

서론에서 국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언급하였는데, 다문화 가정이라 함은 국제 결혼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2> 다문화 가정의 유형화

다문화 가정	종류
국제 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이주한 후에 이룬 가정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이 이주한 경우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입국한 가정
	입국한 후 남한에서 형성된 가정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어른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

육으로 나누어 언어 정책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취학 전에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취학 후에는 국가 교육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언어 능력의 부족은 취학 후 학습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결혼 가정의 어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정책의 대상을 살펴보면, 교육 내용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에서 시행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6: 15).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① 부모(특히 외국인 어머니) 대상 - 한국어교육(특히 문식력 교육), 한국 문화 교육(전통문화 교육 포함)
- ②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 한국어교육(특히 문식력 교육), 상담, 보충 학습, 다문화교육(전통문화 교육 포함)
- ③ 일반 학생 대상 - 다문화 이해 교육(국어과, 사회과, 윤리과, 음악과, 미술과 등을 중심으로)
- ④ 교사 대상 - 전통 문화 연수, 다문화 이해 교육 연수, 다문화 상담 연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수, 소수 언어 교육 연수

이상의 정책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과

사회 봉사 활동 단체나 시민 단체, 교회 등 민간 기관이 함께 담당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협조, 한국어반 운영 등 학교 내의 교육 지원 강화, 민간 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 운영,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 보장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1단계 주류 문화주의 정책을 선택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호주와 같이 2단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조합적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0년, 30년 후에는 호주와 같이 소수 민족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에 한국인과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수효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국제 경향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국제 결혼이나 이민자 자녀와 결혼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가정의 수효가 많아지면, 다문화 이해 교육만이 아니라 소수 언어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다변화하고 이중언어나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언어 정책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유럽권의 나라인 키르키즈스탄의 경우도 60%가 키르키즈인이고 나머지 40%중에 러시아인이 20%, 우즈베크인이 12%, 우크라이나인이 11%, 고려인이 0.2%, 기타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 동유럽, 오세아니아 등의 여러 나라가 단일민족으로는 구성되지 않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추측해 보건대, 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이제 머지 않아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6. 결론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의 보편화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이민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정책을 구안하는 일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에 따라 언어 정책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주류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호주는 1970년대 이전에 주류 다문화주의를 따르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1973년 이후 조합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언어 정책을 바꾸게 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으로 급진적인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1단계 주류 문화주의 정책을 선택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호주와 같이 2단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조합적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수효가 많아지면, 다문화 이해 교육만이 아니라 소수 언어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다변화하고 이중언어나 다국어룰 구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언어 정책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6. 10. 12. 투고되었으며, 2006. 11.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6. 11.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운(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참여의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1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변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이슈페이퍼 보고서.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호(2002),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이원희(2006), “학교 중심의 지역 사회 재편”, 초등 교육의 혁신 방향과 전략, 2006년도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 _____ (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 Castles S.(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From Migrant Worker to Transnational Citizen, London:Sage.
- Dewey J.(1934), Art as Experience, A Perigee Book.
- UNSW(2002), Pocket Statistics.
- Vertovec S(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222-42.
- Vertovec S(2001), “Transnational Challenges to the New Multiculturalism”, Paper presented to the ASA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Sussex, 30 March - 2 April 2001.
- www.curriculumsupport.nsw.edu.au

〈자료 제공자〉

KOLSA(Korean Language and Study Association)

Qee Faa An, 144 The Comenarra Pkwy, Wahroonga 2076 Tel:9987 3935

Sook Hee McRoberts, Korean Language Consultant,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mail) sookhee.mcroberts@det.nsw.edu.au
Ms Margaret Gambley, Leader Recruit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Main Street, Blacktown 2148, Tel:9836 9746

<초록>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권순희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의 보편화로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과 이민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정책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과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에 따라 언어 정책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주류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호주는 1970년대 이전에 주류 다문화주의를 따르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1973년 이후 조합적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언어 정책을 바꾸게 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으로 급진적인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므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언어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부모(특히 외국인 어머니) 대상 - 한국어교육(특히 문식력 교육), 한국문화 교육(전통문화 교육 포함)

②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 한국어교육(특히 문식력 교육), 상담, 보충학습, 다문화교육(전통문화 교육 포함)

③ 일반 학생 대상 - 다문화 이해 교육(국어과, 사회과, 윤리과, 음악과, 미술과 등을 중심으로)

④ 교사 대상 - 전통 문화 연수, 다문화 이해 교육 연수, 다문화 상담 연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수, 소수 언어 교육 연수

이상의 정책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과 사회봉사 활동 단체나 시민 단체, 교회 등 민간 기관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1단계 주류 문화주의 정책을 선택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호주와 같이 2단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조합적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수요가 많아지면,

다문화 이해 교육만이 아니라 소수 언어 정책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을 다변화하고 이중언어나 다국어룰 구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언어 정책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핵심어】 다문화주의, 호주, 언어 교육 정책, 소수 언어, 다문화 가정, 온누리안

<Abstract>

Study on the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Comparing with Australian Language Education Policy-

Kwon, Soon-hee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by the rapid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of farm youths. For the development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foreigners,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tudy on the former examples is necessary. Judging from the Australian examples, which carries out immigration policy and linguistic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linguistic policy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cy to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can be categorized to mainstream multiculturalism, cooperative multiculturalism, and radical multiculturalism. Australia adopted the linguistic policy following mainstream multiculturalism before 1970. After 1973, Australia changed the policy to new one following cooperative multiculturalism. Radical linguistic policy is not practically adequate for language education policy t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Therefore, we should adopt the stepwise policy.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Korean linguistic policy has been suggested as following.

① For parents (especially foreign mothers) - Korean education (especially literacy education), Korean culture education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②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 Korean education (especially literacy education), counsel, supplementary lessons, multicultural education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③ For general students - education for understanding multicuture

④ For teachers - research and training of traditional culture,

multiculture, multicultural counse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minority languages

The policy mentioned above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school and dong off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NGO and church.

At this moment, we might adopt the first step, mainstream multiculturalism, however, we will adopt the second step, cooperative multiculturalism in the future when the number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creasing gradually.

【Key words】 multiculturalism, Australia, language education policy, multicultural family, Onnurian